

慶南教育研究所編

## 學校圖書館經營의 實際

우리 말로 된 圖書館學에 關한 冊이 아주 메마른 요지음 慶南教育研究所編 「學校圖書館經營의 實際」를 손에 들게 되니 기쁘기 限量없다. 지금 우리나라 形便을 보면 公共圖書館보다도 學校圖書館이 훨씬 더 빨리 發展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더욱 이에 拍車를 加하여 發展할 것을 믿어마지 않는 이때 이 圖書가 出版되었다는 것은 時期에 꼭 알맞는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.

이 冊을 손에 들때 너머도 두터운 것에 좀 주춤하여 지기도 하지만 그 內容을 보면 學校圖書館에 對하여 매우 詳細하고 親切하게, 또 그리고 廣範圍하게 풀이 해 주었으며 “第2編 學校圖書館의 組織과 職員” 같은것은 만 部分에 比하여 지나치게 說明된 느낌을 가지게 된다. 그 反面에 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重要視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實際로 많은 經驗을 쌓아야 할 分類, 編目에 있어서의 도리어 說明과 實例의 例示가 적 不足되며 더욱이 많은 缺陷이 包含되어 있다는것은 매우 遺憾된 일이다. 特히 指摘하지 않을수 없는 點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알려진 두이 分類表의 紹介에 있어서 290의 基督教以外的 宗教라든지, 490의 其他 各國言語 또는 890 其他 言語의 文學等에 있어서 는 더 展開된 表를 紹介하여서 佛敎, 韓國語, 또는 韓國 文學等을 分類할수 있도록 잘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가장 重要한 900代 即 地誌와 歷史部門에 있어서는 韓國에 關한 圖書를 分類할수 있도록 配慮하지 않은 點이다. Cutter의 展開式分類表의 紹介에 있어서는 더욱 讀者가 理解할 수 없도록 第2部에 對하여 說明한 것은 오히려 紹介안한 것이 좋았을 런지 모르겠다.

또 한가지 指摘하고 싶은것은 編目欄에 있어서의 例示가 적은 것과 亦是 條目이 많은것이다. 編目에 있어서는 記載位置와 記載方法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. 그러므로 많은 例를 들어서 說明하였더라면 初步者들에게 더욱 큰 指針이 되었을 것이나 東西書編目に 不過10가지 內外程度의 例示와 그나마 記載方法에 있어서의 統一性의 缺如로서 初步者로 하여금 混亂을 가져오게 한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다.

그러나 全體의으로 볼 때 많은 도움을 주는 學校圖書館 指導書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現實을 말 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이 方面 發展에 큰 期待를 가지는 바이다.

끝으로 한가지 特記하고자 하는것은 國民學校用과 中高等學校用 優良圖書目錄을 添加한것이다. “優良”이라는 것이 어찌 基準을 둔것인지 若干 疑問이 안가는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學校圖書館을 爲한 選定된 圖書目錄을 作成했다는 그 自體에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. 이와같은 選定圖書目錄은 文教部같은<sup>9)</sup> 곳에서 國家 將來를 걸머질 靑少年을 爲하여 마땅히 마련하여야 할것이겠지만 지금까지 全然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. 이點에 對해서는 筆者도 屢次 出版物을 通하여 指摘한 바 있지만 이것이 慶南教育研究所에서 처음으로 結實된 것을 볼때 한층 더 기쁨을 느끼는 同時에 讚辭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. 앞으로도 繼續하여 學校圖書館의 좋은 指針이될 第2, 第3 輯이 나오기만 喜待하는 바이다.

(張 一世)